

韓末 丁未義兵運動 小考

金 項 允

目 次

- | | |
|-------------------|------------------|
| I. 序 言 | IV. 湖南義兵의 活躍과 소위 |
| II. 高宗의 退位와 軍隊解散 | 南韓大討伐 |
| III. 義兵運動의 全國的 擴大 | V. 結 語 |

I. 序 言

韓末의 義兵運動은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帝國主義 日本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적인 진출을 강화하여 결국에는 국권까지 강탈해 가는 암담한 상황 아래 전개되었다. 이러한 의병 운동은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예외없이 전개되었으며,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려는 우리 민족의 굶핍 줄 모르는 자주 독립 정신의 표현이었다.

1895년 日本人들에 의한 민비 시해와 강제적인 단발령의 시행 직후로부터 시작된¹⁾ 한말의 의병 운동은 日帝에 의하여 大韓帝國의 주권이 강탈 당한 1910년을 지나 1914년까지도 계속되었다. 전후 20년 동안에 걸쳐 전개된 의병 운동은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 1기는 민비 시해 직후, 제 2기는 을사조약 체결 직후, 제 3기는 군대 해산 직후로부터이며,²⁾ 각각 乙未義兵, 丙午義兵,³⁾ 丁未義兵으로도 불리운다. 그 중에서 제 3기에 해당하는 丁未義兵運動은 헤이그 밀사 사건, 高宗의 강제 퇴위 그리고 丁未七條約의 체결과 같은 일련의 사건에 뒤이은 大韓帝國 군대의 해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발생하였다. 1907년 8월에 시작된 丁未義兵運動은 1908년과 1909년에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1910년 이후 점차 쇠퇴하였다. 乙未義兵

1) 黃玟, 梅泉野錄 卷2, 高宗 32年 乙未條.

遭刺頭官于各府 尅日奮削…… 自是舉國鼎沸 義兵四起.

2) 뒤바보, 義兵傳(韓國學報 1, 1975), p.302.

위의 책에 함께 실린 義兵傳 解題에서 尹炳興씨는 뒤바보가 朴殷植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리하고 있다.

3) 乙巳條約 체결(1905년 11월) 후의 의병 운동은 上疏와 自決을 통한 항의에 이어 1906년(丙午)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운다.

이나 丙午義兵과 비교하여 볼 때 丁未義兵은 그 규모나 지속성, 전투력 등의 면에서 훨씬 진전된 형태의 의병 운동이었으며, 가히 한말 의병 운동의 절정기를 이루었다고 할만한 것이었다. 한편 丁未義兵은 신분 구성과 성격면에서도 그 이전의 의병 운동에 비하여 상당히 변화하고 있었는데, 그 변화는 대체로 대중적, 반 침략적, 반 봉건적 성격의 강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韓末의 義兵運動에 관한 연구는 광복 이후 국내외에 걸친 관계 자료의 계속적인 발굴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⁴⁾ 특히 1968년 이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된 「韓國獨立運動史」 제 1권 및 의병 관계 자료집 3권과 1970년 이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된 「독립운동사」 제 1권 및 자료집 4권(별집 1권 포함) 등은 간행 당시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함과 동시에 그 후의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대한 분량의 업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의병 운동의 제 측면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개별적이고도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말 의병 운동의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동시에 일대 전환기를 이루었던 丁未義兵運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한말 의병 운동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 독립 운동사에서의 한말 의병 운동의 의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筆者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말의 의병 운동에 관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면서 특히 丁未義兵運動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각 단계별 특성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한말 의병 운동의 전반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삼고자 한다.

4) 韓末의 義兵運動에 관한 주요 개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 ① 姜在彥, 反日義兵運動의 歷史的 展開(朝鮮近代史研究, 日本評論社, 1970).
- ② 金義煥, 丁未年 朝鮮軍隊解散과 反日義兵鬪爭(郷土서울 26, 1966).
- ③ 金義煥, 義兵運動의 思想的 限界性(韓國思想 10, 1972).
- ④ 朴成濤, 1907~1910年間の 義兵戰爭에 對하여(韓國史研究 1, 1968).
- ⑤ 朴成濤, 義兵戰爭의 身分·意識構造(韓國史學 1, 1975).
- ⑥ 成大慶, 韓末의 軍隊解散과 그 緣起(成大士林 1, 1965).
- ⑦ 申爽鎭, 韓末義兵의 概況(史叢 1, 1955).
- ⑧ 尹柄爽, 抗日義兵(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81).

II. 高宗의 退位와 軍隊解散

1. 高宗의 退位와 丁未七條約

丁未義兵運動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大韓帝國 군대의 해산은 헤이그 밀사 사건과 高宗의 강제 퇴위에 뒤이어 체결된 丁未七條約에 따른 것이었다.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 여론화시키기 위하여 1907년 6월 헤이그 萬國平和會議에 파견된 高宗의 밀사 세 사람(李相高, 李儁, 李璋鍾)은 당시의 강대국 중심의 국제 정세 하에서 殺身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⁵⁾ 이 사건의 소식에 접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자주권을 상실한 울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항일 투쟁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다.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 병합의 음모를 더욱 촉진시키고자 하여 반일적인 성향이 강한 高宗의 퇴위와 내정 간섭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게 되었다.⁶⁾

李完用 내각과 一進會를 앞세우고, 일제의 군대와 경찰을 등에 업은 統監 伊藤博文은 선전 포고의 위협을 비롯한 갖은 공갈과 협박으로 高宗에게 퇴위를 강요하였다. 결국 高宗은 강요에 못이겨 7월 19일에는 양위의 조칙을 내렸고, 20일에는 權停例⁷⁾에 따른 약식의 의식을 통하여 純宗에게 양위할 수 밖에 없었다.

高宗의 강제 퇴위를 전후하여 우리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격렬한 항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7월 18일에는 高宗이 일본으로 붙잡혀 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민심이 크게 자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梅泉野錄」에는,

伊藤博文이 임금을 일본으로 옮기고자 하여 別車를 궁 밖에 숨겨두고 임금을 위협하여 태우려고 하였는데, 都民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남녀 노소가 방망이와 몽둥이를 들고 분분히 달려나와 잠깐 동안에 거리를 메웠다.⁸⁾

라고 하였으며, 또 양위의 조칙이 내려진 7월 19일의 상황에 대하여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일 새벽에 양위의 조서가 갑자기 내리자, 인심은 더욱 격분하여 미쳐 날뛰며 외와하고 부르짖으니, 대궐 밖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日警들이 몰아내려고 하자 백성들은 기와

5)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1 (1968), pp.181~185.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1970), pp.429~430.

7) 權停例란 新·舊皇帝가 모두 참석하지 않고 內官이 舊皇帝를 대신하여 讓位の 조칙을 읽는 약식의 의식을 말한다.

8) 前揭, 梅泉野錄 卷5, 光武 11年 丁未條.

조각과 돌을 난잡히 내던져, 두어명을 부상시키자 그들은 드디어 발포하여 죽이며 물리쳤다.⁹⁾

양위식이 거행된 7월 20일 이후에도 李完用의 집을 불태우는 등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되었으며,¹⁰⁾ 일본 군경의 삼엄한 경비와 강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각 지방에도 파급되어 전국적으로 반일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우리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高宗의 퇴위를 실현시킨 일제는 곧 이어 7월 24일에는 한국 병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丁未七條約을 李完用 내각에 제출하여 당일로 새 황제인 純宗의 재가까지 받아내었다. 內閣總理大臣 李完用과 統監 伊藤博文의 이름으로 체결된 이 조약은 한국 정부에 대한 통감의 지배권을 대폭 강화시킨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 제 2 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 제 3 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 제 4 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 제 5 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 제 6 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僱聘하지 않을 것.
- 제 7 조 明治 37년 8월 22일 조인한 日韓條約 제 1 항을 폐지할 것.¹¹⁾

이 조약의 조인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부수 작서가 비밀리에 조인, 교환되었다. 丁未七條約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이 비밀 부수 작서의 주요한 내용은 일제에 의한 한국 사법권의 장악, 한국 군대의 해산, 차관 정치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한국 군대의 해산에 대해서는 조약의 원안에도 관련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서, 이는 일제가 극비리에 한국 군대의 해산을 꾀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¹²⁾ 일제는 이 丁未七條約의 부수 작서에 의거하여 7월 31일 純宗으로 하여금 군대 해산의 조칙을 재가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강제 병합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2. 大韓帝國 軍隊의 解散

1905년 이후 한국 군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일제의 음모가 계획,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¹³⁾ 해산 당시의 한국 군대의 규모는 매우 보잘 것이 없었다. 즉 서울에는 侍衛 2개 연대 약 4천

9) 朴殷植著·南晚星譯,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瑞文堂, 1975), p.43.

10) 金允植, 續陰晴史 卷12, 光武 11年 丁未 7月條.

11)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1, pp.230~231.

12) 同上, pp.231~233.

13) 同上, pp.239~240.

명을 비롯하여 도합 5천명 남짓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¹⁴⁾ 지방의 鎭衛隊에는 水原, 淸州, 大邱, 光州, 原州, 海州, 平壤, 北靑 등의 8개 대대를 비롯하여 전국 요소의 分遣所에 도합 2천 수백명이 배치되어 있었다.¹⁵⁾ 한국군에 대해 소총과 탄약 지급을 통제하는 등 한국 군대의 해산을 위한 사전 조치를 완료한 일제는 7월 31일 밤 純宗으로 하여금 군대 해산 조치를 재가하도록 하고 8월 1일 오전 10시 訓練院에서 해산식을 갖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지방 鎭衛隊의 해산은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산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서울에서의 군대 해산은 8월 1일 아침 일찍 각 부대의 한국군 부대장과 일본인 교관에게만 조치의 내용을 알리고, 병사들은 도수 훈련을 병자하여 맨손으로 訓練院에 집합시켜 그대로 해산시킬 계획이었다. 이 때 계획된 한국 군대 해산의 순서와 방법에 의하면 일제는 純宗의 해산 조치를 앞세우되 해산 군대에 대한 회유책과 일본군의 경비책 등을 갖추어 놓고 있었다.¹⁶⁾

그러나, 중무장한 일본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진행된 한국군 해산 계획은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니 侍衛 제 1연대 제 1대대는 朴昇煥대대장의 권총 자결을 계기로 무기고를 습격하여 봉기하였고, 제 2연대 제 1대대도 연이어 봉기하여 일본군과 시가전을 전개하였다. 봉기한 한국 군대는 이 날 오전 내내 우세한 장비의 일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결국 약 70명의 전사자와 100여명의 부상자를 낸채 진압되고 말았으며, 전투가 끝난 이 날 오후 일본군은 강제 소집된 일부 한국 군대의 해산식을 강행하였다.¹⁷⁾

이 때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되지 않은 봉기군은 일본군의 수색을 피해 지방으로 탈출하여 각 지방의 의병 부대에 합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梅泉野錄」에는,

바로 성 밖으로 달아난 자는 모두 의병들과 합하였다.¹⁸⁾

라고 하였으며, 「騎驢隨筆」에는,

나머지 군대는 각자 흩어져 정미년 8도의 의병이 다시 일어났다.¹⁹⁾

라고 하였다. 한편 일본군의 기록에도 해산병의 의병 합류와 그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해산된 군인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도망하여 폭도들의 무리에 투신함으로써 오랜 전란의 불길울 종식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²⁰⁾

14) 前掲, 독립운동사 1, pp.459~460.

15) 同上, pp.469~470.

16)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I (原書房, 1967), pp.15~16.

17)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1, pp.245~246.

18) 前掲, 梅泉野錄 卷 5, 隆熙 元年 丁未條.

19) 宋相廉, 騎驢隨筆, 南相廉條.

20) 朝鮮駐劄軍司令部編, 朝鮮暴徒討伐誌(金正明編, 前掲書 所收), p.139.

라고 한 것이다.

서울에서의 侍衛隊의 봉기는 8월 3일부터 9월 3일 사이에 해산하기로 계획된 지방 鎭衛隊와 分遣所의 병사들에게도 큰 자극을 주어 原州鎭衛隊와 水原鎭衛隊 江華島分遣所를 비롯한 각지에서 봉기와 탈영이 계속되었다.²¹⁾ 이들 역시 대거 각 지방의 의병 부대에 합류함으로써, 乙未, 丙午年의 기병 이후 일단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던 의병 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한말 의병 운동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이루게 되었다.

Ⅲ. 義兵運動의 全國的 擴大

1. 解散兵 義兵部隊 合流의 影響

해산 당한 大韓帝國 군대의 의병 진영에의 합류는 1906년 후반기 이후 침체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의병 운동²²⁾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다. 정부군의 입장에서 의병 진압에 참여하였던 大韓帝國 군대의 의병 진영에의 합류는 반일 의병 운동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군대 해산 이후의 丁未義兵運動은 해산 이전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첫째, 해산병의 합류는 의병 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1906년 10월로부터 1907년 군대 해산 전까지 京畿, 黃海, 江原, 忠淸, 全羅, 慶尙道에 걸친 6도 58군에 달하였던 의병 활약 지역은 1907년 8월 1일 이후 군대 해산과 더불어 平安, 咸鏡道 및 間島, 沿海州에 까지 확대되게 되었다.²³⁾ 이러한 의병 운동의 전국적 확대 이유로는 우선 군대 해산으로 인하여 한국 군대 대신에 일본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병 탄압에 나서게 됨으로써 의병 운동의 적으로서 日帝의 존재가 뚜렷이 부각되고 의병 운동의 반침략적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전보다 훨씬 광범위한 계층의 직접 참여나 간접 참여가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鎭衛隊와 그 分遣所가 전국의 주요 도시에 배치되었던 관계로 그 해산과 동시에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방 의병 부대에 합류하거나 새로이 의병 부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것도 의병 운동의 전국적 확대의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둘째, 해산병의 합류로 의병 부대는 전술과 장비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전투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사실 군대 해산 이전의 의병은 그 전투력 면에서 볼 때 매우 보잘것이 없었다. 「梅泉野錄」에 1896년 全羅道 長城에서 기병한 前參奉 奇宇萬의 의병 부대에 대하여,

21) 前掲, 독립운동사 1, pp.470~479.

22) 丙午義兵은 閔宗植, 崔益鉉의 起兵과 그 실패를 고바로 일단 쇠퇴하게 되었다.

23) 前掲, 독립운동사 1, pp.485~486.

그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深衣, 大冠에 揖讓序進하며, 식량과 무기가 없고, 기율이 없으니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²⁴⁾

라고 하였으며, 또 1906 년의 의병에 대하여,

京畿, 江原, 忠清, 慶尙 諸道에서 의병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무기와 기율이 없어서 비록 千百의 무리를 이루었을지라도 일본군 심수명을 만나면 문득 패하여 흩어진다.²⁵⁾

라고 하였듯이 잘 훈련되고 우세한 무기를 갖춘 정부군이나 일본군에 맞서 싸울만한 전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대 해산 이후 이러한 양상은 크게 바뀌어 「續陰晴史」에는,

加平, 原州, 堤川 여러 곳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해산 병정이다. 洋銃을 가지고 일찌기 조련을 거쳐 기율이 있으니 日兵과 교전하면 살상을 매우 많이 하였다. 세력이 매우 강대하여 그 수가 거의 4,5천명에 이른다고 한다.²⁶⁾

라고 하여 무기, 훈련 상황, 기율 등에서 일본군과 교전 상대가 될만 하였으며, 의병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산병이 합류한 의병 부대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기록에도,

이들 兵丁이 많이 섞인 匪類는 일반 폭도에 비하여 적어도 대오를 이루어 전투하는 방법과 사격술을 知得하고 있으므로 그 저항이 비교적 완강한 것은 그 때문이다.²⁷⁾

라고 하여 그 전투력의 향상을 인정하고 있다.

세째, 의병 부대의 구성 특히 의병장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朴殷植이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서 전투를 익히지 않은 선비와 무기 없는 농민들이 殉國할 결심으로 맨주먹으로 싸운 것이 의병이라고 하였듯이²⁸⁾ 군대 해산 이전의 의병 부대는 대부분이 유생, 양반을 의병장, 농민을 의병 대중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군대 해산 이후에는 이러한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니, 해산병들은 독자적으로 의병 부대를 조직하여 의병장이 되거나 기존의 의병 부대의 의병장이 되어 의병 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군인 출신 의병장의 대부분은 下士 이하의 병졸들이었으므로 의병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대거 출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²⁹⁾

24) 前揭, 梅泉野錄, 建陽 元年 丙申錄.

25) 上揭書, 光武 十年 丙午錄.

26) 前揭, 續陰晴史 卷 12, 隆熙 元年 丁未 8 月條.

27) 前揭, 朝鮮暴徒討伐誌, p.125.

28) 前揭, 韓國獨立運動之血史, pp.47~48.

29) 前揭, 독립운동사 1, p.490.

그리하여 군대 해산 이후의 丁未義兵運動에서는 李麟榮, 許薦, 李康牟 등 다수의 유생, 양반 출신의 의병장과 함께 閔肯鎬, 延期羽, 池弘允 등의 군인 출신과 申丕石, 金秀敏, 洪範圖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활약하게 되었으며, 이들 군인 및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이끄는 의병 부대의 활약은 유생, 양반 출신이 이끄는 의병 부대에 비하여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군인 및 평민 출신 의병장의 대두라고 하는 의병 부대 구성상의 변화는 丁未義兵運動의 진전과 함께 점차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1908년과 1909년 일본 군경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군인 및 평민 출신 의병장이 전체 의병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통계 결과도 발표되어 있다.³⁰⁾ 그리고 이러한 군인 및 평민 출신 의병장의 현저한 대두는 衛正斥邪思想으로 무장하고 있는 유생, 양반 출신에 의하여 주도된 의병 운동의 反外勢적이고 復古指向의인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니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反封建의인 요소가 새롭게 가미되기 시작하였다.³¹⁾

2. 各地 義兵의 活躍과 서울進攻作戰

해산 군대의 합류로 전투력이 크게 향상된 의병 부대는 1907년 8월 이후 급속히 활동 범위를 넓혀 북으로 咸鏡道, 平安道로부터 남으로 慶尙道, 全羅道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梅泉野錄」에는 이 때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關東, 湖西, 嶺南에 의병이 크게 일어나서 서울 동쪽의 여러 군에서도 역시 일시에 호응하였다. 倭는 연속하여 精兵을 파견하였으나 지형에 어두워 진퇴에 실패하였으며, 의병은 새로 일어난 기세로 부인들은 木石을 운반하고 노약자는 酒漿을 나르며 천리에 연이어 둘러있어 험한 곳에 근거하여 출몰하였다. 그리하여 倭兵은 奔命을 따르기에 피로하여 往往 敗沒하였으나 그 패배를 꺼려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다. 倭兵으로서 原州에서 죽은 자가 첫번째 싸움에서 200여명, 두번째 싸움에서 400여명이고, 忠州에서 죽은 자가 600여명인데 그 머리를 배어 배에 가득 실어 楊根江으로부터 서울로 들어 온 것이 무릇 4,5척이 되었다.³²⁾

또 이 당시 의병들의 기동성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기록에도,

匪團의 행동은 항상 토벌 부대의 이목을 피하면서 각지를 횡행하고 놀랄만한 신속과 정확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察知하고 土民의 원조와 熟地의 편익에 의하여 隨時隨所에 출몰하여……³³⁾

라고 하였는데, 전국 각지에서 활약한 의병 부대가 1907년 가을로부터 1908년 봄까지 일본 군경과 접전을 벌인 회수는 일본 측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30) 朴成壽, 前掲, 1907~1910年間の 義兵戰爭에 對하여, pp.126~128.

31) 前掲, 독립운동사 1, pp.493~494.

32) 前掲, 梅泉野錄 卷5, 隆熙 元年 丁未條.

33) 前掲, 朝鮮暴徒討伐誌, p.126.

〈표〉 의병과 일본 군경과의 월별 전투 회수³⁴⁾

월 별	전 투 회 수	월 별	전 투 회 수
1907 년 10 월	117 회	1908 년 2 월	211 회
1907 년 11 월	265 회	1908 년 3 월	288 회
1907 년 12 월	276 회	1908 년 4 월	240 회
1908 년 1 월	262 회	(4 월 29 일 까지)	

全國聯合義兵部隊(13道信義軍)의 편성과 서울進攻作戰은 항일 의병 운동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고 전투력도 크게 향상된 가운데 계획, 추진된 것이다. 이 일을 주도하였던 李麟榮은 京畿道 驪州 출신의 유학자로서 乙未義兵 때에도 기병하여 명망을 얻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 후 關慶에서 은거 생활을 하며 농사일에 힘쓰고 있었으나, 날로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라보며 재봉 기할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대 해산 이후인 1907년 9월 江原道 原州에서 봉기한 李殷瓚과 李九載의 추대를 받아 關東信義大將이 되었다. 李麟榮은 그 후 의병을 모집하면서 楊州로 진출한 후 전국의 의병장에게 분산적인 의병 항쟁을 지양하고 一致團結할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보내어 楊州에 집결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서울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관에 은밀히 통문을 보내어 항일 의병 운동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³⁵⁾

李麟榮의 비밀 격문에 호응하여 1907년 12월까지는 전국 각지의 의병 부대가 속속 楊州에 집결하였는데, 江原道の 閔肯鎬, 李殷瓚, 李九載, 京畿道の 許薦, 黃海道の 權重熙, 忠清道の 李康牟, 全羅道の 文泰洙, 平安道の 方仁寬, 咸鏡道の 鄭鳳俊 등의 의병장이 각각 의병 부대를 이끌고 응으로써 이 때 모인 의병의 총수는 약 만명에 이르렀다. 여러 의병장들은 李麟榮을 13도 의병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연합 의병 부대의 부서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³⁶⁾

元帥府十三道總大將	李麟榮	軍 師 將	許 薦
關 東 義 兵 大 將	閔肯鎬	湖 西 義 兵 大 將	李康牟
嶺 南 義 兵 大 將	朴正斌	京 畿, 黃 海 嶺 東 大 將	權義熙
關 西 義 兵 大 將	方仁寬	關 北 義 兵 大 將	鄭鳳俊
湖 南 義 兵 大 將	文泰洙		

13도 연합 의병 부대는 부서를 결정한 후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들의 서울 진공의 목적은 統監府를 격파하고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무효화시켜 국권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³⁷⁾

34) 前掲, 朝鮮獨立運動 I, p.25.

35) 前掲, 騎驢隨筆, 李麟榮條.

前掲, 독립운동사 1, pp.503~505.

36) 前掲, 騎驢隨筆, 李麟榮條.

37) 同 上

李麟榮은 서울을 향한 진군을 명령한 뒤 스스로 300명의 선발대를 이끌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까지 진격하였으나, 후속 부대가 도착하지 않고 일본군의 선제 공격을 받음으로써 패퇴하고 말았는데 「騎驢隨筆」에는 李麟榮의 서울 진공 당시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軍師는 그 의병 부대를 경둔하여 발진을 준비하였다. 이에 麟榮이 各道 의병 부대에 명령을 내려 일제히 진군할 것을 재촉하고, 스스로 300명을 이끌고 먼저 동대문 밖 30리에 이르렀다. 各軍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日兵이 먼저 쳐들어와 더불어 분전하였으나 적을 당할 수가 없어 이내 退軍하였다.³⁸⁾

서울 근교에서 일단 퇴각한 李麟榮은 楊州에서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자 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1908년 1월 閔慶으로부터 전해진 부친 사망의 부고를 받게 되었고, 부고를 받은 당일로 軍師長 許薦에게 뒷 일을 맡기고 의병 운동 중지의 통문을 각 의병 부대에 전한 후 閔慶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李麟榮은 부친의 장례를 마친 후에도 不孝가 不忠이요, 不忠이 不孝라는 유교적 윤리에 얽매어 다시 기병할 것을 바라는 주위의 권유를 물리치고 3년상을 치른 후를 기억하였다. 그러나 이 기억은 그가 1909년 6월 忠淸北道の 한 은신처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그 해 9월 서울에서 처형당함으로써 허사가 되고 말았다.³⁹⁾

이렇게 하여 13도 연합 의병 부대의 편성과 서울 진공 작전은 어찌구무없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실패는 李麟榮의 예에서나 申堧石을 비롯한 평민 출신 의병장을 소외시킨 데에서 볼 수 있듯이⁴⁰⁾ 이를 주도한 유생, 양반 출신 의병장들의 사상적, 신분적 한계성을 노출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장비와 전술을 갖춘 일본군과의 정면 대결이 매우 불리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이 이후의 의병 운동에서는 각 지역의 의병 부대가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평민 출신 의병장들의 활약 증대가 두드러지며, 전술면에서도 점차 소규모 의병 부대에 의한 다양한 유격전의 양상을 많이 띠게 되었다.

3. 日帝의 野蠻的 義兵彈壓

丁未義兵運動이 활기를 띠게 되자 일제는 군, 헌병, 경찰 병력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켰으며,⁴¹⁾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세가 크게 올라 있던 일본군은 의병에 대한 무자비한 공세를 취함과 동시에 의병에 협력하였다는 구실로 우리의 양민과 그들의 촌락에 대하여 살륙과 초토화의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우선 일본군 자신의 기록

38) 同上

39) 前掲, 朝鮮獨立運動 I, pp.36~37.

前掲, 騎驢隨筆, 李麟榮條.

40) 前掲, 독립운동사, p.507.

41)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I, pp.298~301.

에 의해서 보더라도,

그들 폭도는 그 복장이 원래부터 양민과 다름이 없는 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바로 무기를 버리고 양민으로 가장하여 우리의 예봉을 피하는 수단을 채택하며, 사건 발생 초기에는 土人이 또한 그들 폭도에 동정하여 이를 비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토벌대는……책임을 現犯의 村邑으로 돌려 주륙을 가하고 또는 진 촌락을 불태우는 등의 처치를 실행하여 忠淸北道 堤川地方과 같은 곳은 거의 초토화하게 되었다.⁴²⁾

라고 할 정도였다. 한편 1907년 가을 우리 나라 중부 내륙의 의병 활동 지역을 여행한 영국의 언론인 맥켄지(F·A·Mckenzie)는 그의 저서 「대한제국의 비극 (THE TRAGEDY OF KOREA)」에서,

내가 제천에 이르렀을 때는 햇살이 뜨거운 초여름이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는 일장기(日章旗)가 햇빛에 눈부시게 펼쳐져 있고 있었으며 일본 위병의 총칼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나는 언덕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가 잣더미 위를 걸었다. 나는 이제까지 그토록 심한 참상을 결코 본적이 없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붐볐고 풍요했던 마을이 이제는 검은 잣더미 밖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벽, 기둥, 장독 그 어느 것도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 저기에는 값나가는 물건을 찾기 위하여 잣더미를 뒤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질없는 일이었다. 이제 제천은 지도상에 없어진 마을이 되었다.⁴³⁾

라고 하여 堤川의 참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일본군의 이러한 만행은 堤川 지방에서만 자행된 것은 아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병의 활동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제의 군경에 의하여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병 운동에 대한 일제의 이러한 야만적인 탄압 행위는 한편으로 우리 국민의 항일 투쟁에의 참여 계층을 더욱 확대시키고, 반일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일제의 경찰도 자신들의 기록에서,

그 부모, 형제를 잃은 일가 권속이 모두 일본을 원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排日의 원인은 이들 폭도 및 양민의 살육에 의해 그 범위를 넓히고, 또 스티븐스 및 伊藤博文 등의 암살 결행은 모두 시체를 분개하여 국외로 도주한 자, 혹은 토벌의 난을 피하여 망명한 자들의 소행으로서 일부에서의 배일 정신은 견고하여 뿌리 뽑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도 토벌에 의해 장래 한층 더 많은 排日者를 낳게 할 것임을 용이하게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⁴⁴⁾

라고 하여 의병과 양민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42) 前掲, 朝鮮暴徒討伐誌, pp.131~132.

43) F. A. 맥켄지著·申福龍譯註, 大韓帝國의 悲劇(探求堂, 1974), p.228.

44)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p.5.

그리고 일본군 측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의 표 역시 일제 군경의 야만적 탄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병 운동이 쉽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1908 년과 1909 년에 그 절정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 1907 ~ 1911 년의 반일의 의병 투쟁⁴⁵⁾

년 도	전 투 회 수	참 가 의 병 수
1907 (8 ~ 12 월)	323 회	44,116 명
1908 (1 ~ 12 월)	1,451 회	69,832 명
1909 (1 ~ 12 월)	898 회	25,763 명
1910 (1 ~ 12 월)	147 회	1,891 명
1911 (1 ~ 6 월)	33 회	216 명

IV. 湖南義兵의 活躍과 소위 南韓大討伐

1. 湖南義兵의 活躍

丁未義兵運動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면서 크게 활기를 띠게 되자 그에 대한 일제 군경의 탄압도 더욱 무자비하게 전개되었다. 전술과 무기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의병 부대는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으며, 특히 1908 년 2 월 이후 많은 수의 저명한 의병장들이 전사, 체포, 처형되었다.⁴⁶⁾ 이에 따라 의병 부대의 활동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대거 등장하는 가운데 점차 세분되어 소규모화하고 정규전보다는 유격전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1909 년에 들어서서의 의병 운동에서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전국 의병 운동에서 全南北地方의 의병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는 사실이다. 즉 일제의 군경과의 교전 회수, 교전 의병수에서 1908 년에는 각각 전국의 25 %와 24.7 %를 차지하였던 全羅南北道의 의병 운동은 1909 년에는 47.3 %와 60.1 %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⁴⁷⁾ 1894 년의 동학 운동의 발생 이후 일련의 반외세적 민중 운동의 진원지가 되어 왔던 이 지역에서는 1908 년 말 이후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크게 대두하였는데, 그들 중 全海山, 枕南一等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0 명 내외의 소규모 의병을 거느리고 활약하였다.⁴⁸⁾

45) 前掲, 朝鮮暴徒討伐誌, pp.245~247. 이 통계는 5인 이상의 집단적 충돌만을 다룬 것임.

46) 姜在彦, 前掲, 反日義兵運動의 歷史的 展開, p.300.

47)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1, pp.295~296.

48) 前掲, 朝鮮獨立運動 I, pp.100~105.

이러한 湖南義兵의 활동에 대하여 全羅南道 觀察使 申應熙는 1909년 3월 6일자 諭告 제 1호에서,

本道の 폭도는 전국에서 가장 발호하고 횡포를 극하여 각지 도처에서 금품을 약탈하여 양민을 괴롭히는 일은 실로 오늘보다 더한 날이 없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력하여 匪徒의 경찰과 토벌에 힘써 고심 분주하였으나 아직 진정되지 않은 감이 있음은 필경 폭도의 정황이 불명하고 지방 인민 중 폭도의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이를 동정하여 그 정황을 감추고 이를 경찰 또는 수비대, 헌병대 등에 보고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또 드물게 이를 보고하는 자가 있어도 번번이 시일이 경과하거나 도주 후의 일이어서 대부분 시기를 놓쳐 토벌대로 하여금 왕왕 헛된 수고에 그치는 일이 적지 않다. 이 때를 없애지 않고서는 여하히 경찰 또는 수비대, 헌병대에서만 고심 초려한다 할지라도 안도할 수 없다.⁴⁹⁾

라고 하여 湖南義兵의 극성함을 시인하면서 의병 진압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협력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일제의 경찰도,

全羅南道는 타도에 비하여 賊勢가 창궐하고 首魁가 각지에 할거하여 그 세력이 강대한 자는 수 백명의 부하를 가져 항상 사방을 횡행하고 …… 또 재류 日人을 급습하고 심지어는 소수의 수비 군무병 또는 호위병을 요격하여 병기 혹은 하물을 뺏는 등 그 세위가 매우 폭력한 바가 있다.⁵⁰⁾

라고 하여 이 지역 의병 세력의 강인함을 실토했다.

한편 1909년 4월 木補의 일본인 상업회의소에서 의병 진압을 統監府에 호소하는 모임에서,

全南 각지에 폭도가 횡행하여 인민은 기거에 불안하고 1리의 行程도 안전을 기할 수 없음을 각지가 같은 형편인지라 全南 개발상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앞서 한일협약이 訂立된 이후 의병이 각지에 횡행하기 2개년에 이르도록 아직 그 진압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 全南의 경우에 있어서는 협약의 도가 오히려 이전보다 배가되어 인민은 밤낮으로 안도하지 못하고 재물을 뺏앗기고 생명을 잃어 그 피해가 수백전에 이르고 있으나 호소할 길도 없거니와 구제를 받을 곳도 없다. 이로 인하여 교통은 두절되고 농사는 위미하고 상업은 떨치지 못하여 직접, 간접의 손해가 막대하다.⁵¹⁾

라고 하여 의병의 성함과 그에 따라 자신들의 경제적 침략 행위가 저지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의 군경은 이러한 湖南義兵의 활발한 활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결국 1909년 가을의 소위 南韓大討伐을 준

49) 朝鮮統監府 警務局編, 暴徒에 關한 編冊, 全南警秘發 제 384호 (1909.3.8).

50) 同上, 全南警秘發 제 1004호 (1909.6.1)

51) 同上, 警高秘發 제 8-1호 (1909.4.12)

비하게 되었다.

2. 소위 南韓大討伐과 義兵運動의 退潮 및 轉換

일본군에 의한 소위 南韓大討伐 작전은 이렇게 湖南地方의 의병 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던 1909년의 9월 1일부터 약 2개월 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일본군은 南韓大討伐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크게 두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는 全羅南北道는 넓은 옥토가 있고 지세가 바다에 임하여 좋은 항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도가 성하여 여러 차례의 기병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꺾이지 않음으로써 상업의 발달과 政命의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全羅南北道의 백성들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에 일본군의 활동을 한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임진란 때의 일만을 생각하고 일본 사람을 멸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皇軍의 위력을 보여서 일본 역사상의 근본적 명에 회복을 해야한다는 것이었다.⁵²⁾

장교 110명, 하사 183명, 병졸 1,967명 등 도합 2,260명의 일본군⁵³⁾과 현지의 헌병, 경찰을 모두 투입한 이 작전에서 일제는 치밀한 계획 아래 의병과 양민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하였으니 「梅泉野錄」은 그 참상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倭人이 길을 나누어 湖南義兵을 수색하는데…… 四圍를 그들 치듯이 해놓고 촌락을 살살이 수색하고 집집마다 빗질하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바로 죽였다. 이에 길에는 행인이 끊기고 이웃과는 통하지 않았다. 의병들은 삼삼오오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으나 숨을 곳이 없어 강자는 돌진하여 싸우다 죽었고 약자는 기어서 달아나다 칼을 맞았다. 점차 쫓기어 康津, 海南에 이르러 더 갈 곳이 없어 죽은 자가 무려 수천명에 달하였다.⁵⁴⁾

일본군은 湖南의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포위망을 압축하였으며, 해안선에는 쫓겨오는 의병을 포살하기 위하여 수리정까지 출동시켜 해안을 봉쇄하고 있었다.⁵⁵⁾ 10월 25일까지 계속된 일본군의 이 무자비한 살육 작전에 의하여 湖南의 의병 부대들은 어쩔 수 없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으니 도합 100여명의 의병장들이 피살되거나 체포되었으며, 2,000여명의 의병이 체포되었다.⁵⁶⁾

이로써 1908년과 1909년에 걸친 韓末義兵運動의 절정기에 있어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대거 진출하고 소규모 부대에 의한 유격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크게 활기를 띠었던 湖南地方의 의병

52) 前掲, 朝鮮獨立運動 I, p.84.

53) 前掲, 독립운동사 1, p.648.

54) 前掲, 梅泉野錄 卷6, 隆熙 3年 己酉條.

55) 前掲, 暴徒에 關한 編冊, 長警秘收, 제 542호 (1909.9.22)

前掲, 朝鮮獨立運動 I, p.86.

56)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1, p.328.

운동은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그 결과 1909년 일제 군경과의 교전 회수와 교전 의병수에서 전국의 47.3%와 60.1%를 차지하였던 湖南義兵은 1910년에는 각각 4.7%, 2.3%를 차지하는데 그치게 되었다.⁵⁷⁾

1909년 말 소위 南韓大討伐이라고 하는 일본군의 대공세로 湖南義兵이 크게 쇠퇴한 것을 고비로 전체 의병 운동도 현저한 퇴조의 기미를 보였으며 결국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1910년에 들어서서는 전투 회수나 참가 의병수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였으며, 소규모화한 의병 부대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것은 아니었으나 강제 병합을 전후하여서는 더욱 조직적인 의병 운동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군은 1910년 11월에서 12월까지에는 慶尙北道 일원에서, 또 1911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서는 黃海道에서 앞서의 南韓大討伐과 유사한 형태의 살륙 작전을 다시 전개하였다.⁵⁸⁾

이 이후에도 소규모의 의병 운동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으나 더 이상 일제의 침략자들에게 위협적인 것이 되지는 못하였으며, 1914년 林炳瓚, 田鎔圭 등이 중심이 된 獨立義軍府의 활동이 좌절됨으로써,⁵⁹⁾ 국내에서의 의병 운동은 완전히 정지되고 말았으니 1910년 이후 의병 운동 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 1910~1913년 반일 의병 투쟁⁶⁰⁾

년	도	전 투 회 수	참 가 의 병 수
1910년		120 회	1,832 명
1911년		41 회	271 명
1912년		5 회	23 명
1913년		3 회	40 명

의병 운동의 종식 이후 일제의 악랄한 식민 통치 아래에서 국내의 민족 운동은 장차의 더 큰 민족적 역량의 결집을 위하여 內燃하게 되었으며, 일부의 잔존 의병 세력은 閔島, 沿海州 등으로 이동하여 활동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무장 독립 운동의 중요한 맥을 이루었다.

57) 前掲, 독립운동사 1, p.653.

58) 前掲, 朝鮮獨立運動 I, pp.233~237.

59) 前掲, 騎龍隨筆, 林炳瓚條.

前掲, 高等警察要史, pp.177~179.

60) 前掲, 韓國獨立運動史 2, p.71. 이 통계는 헌병 경찰과의 충돌만을 집계한 것임.

V. 結 語

韓末의 丁未義兵運動은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 병합 야욕이 막바지에 이르른 1907년에 시작되어 1908년과 1909년에 그 절정을 이루었던 민족 운동이었다. 丁未義兵運動은 衛正斥邪思想에 기반을 둔 乙未義兵과 丙午義兵의 반외세, 복고적인 성격을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규모와 전술 그리고 성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韓末義兵運動의 절정기이자 전환기였던 丁未義兵運動의 전개 과정과 단계별 특성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丁未義兵運動은 大韓帝國 군대의 강제 해산을 계기로 하여 1907년 8월에 발생하였다. 서울의 侍衛隊와 지방 각지의 鎭衛隊의 병사들은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丁未七條約의 부수 각서에 의하여 실시된 이 해산 조치에 반대하여 봉기하였다. 이들은 결국 우세한 일본군에 의하여 진압당하였으나 다수의 해산병들이 丙午年의 봉기 이후 침체 상태에 있던 각 지방의 의병 부대에 합류함으로써 의병 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다.

2) 해산 당한 大韓帝國 군대의 의병 진영에의 합류는 그 이후의 의병 운동에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변화의 첫째는 의병 운동이 전보다 광범위한 국민 각계 각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해산병의 합류로 의병 부대의 전술과 장비가 개선되어 종래의 보잘것 없었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셋째는 군인 및 평민 출신 의병장이 다수 등장함으로써 종래의 유생, 양반 출신 의병장 중심의 구성과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3) 李麟榮을 비롯한 유생, 양반층에 의하여 주도된 13도 연합 의병 부대의 구성과 서울 진공 작전은 군대 해산 이후 의병 운동의 양적, 질적 성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 진공 작전은 실패하고 연합 의병 부대는 허무하게 와해되고 말았는데 이는 유생, 양반 출신 의병장들의 사상적 한계성을 노출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 일본군과의 정면 대결의 무모함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 결과 이 이후로는 군인 및 평민 출신 의병장의 대두가 더욱 현저하게 되었으며, 전술도 소규모 부대에 의한 다양한 유격전의 양상을 많이 띠게 되었다.

4) 군인 및 평민 출신 의병장의 대거 등장과 의병 운동의 유격전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丁未義兵運動의 절정기를 이룬 1908년, 1909년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것은 湖南地方의 의병 부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일본군의 소위 南韓大討伐 작전에 의하여 그 예기를 꺾이고 말았으며, 1909년 말 湖南義兵의 퇴조를 고비로 전국의 의병 운동도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5) 丁未義兵運動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일제는 이의 탄압을 위하여 정규군 및 헌병, 경찰을 대폭적으로 증강시켰으며, 이들 일제의 군경은 의병과 양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육과 초토화 작전을 자행하였다. 결국 일제의 침략에 대항한 한말 의병 운동의 절정을 이룬 丁未義兵은 일제 군경의 야만적인 탄압 정책에 의하여 진압되고 말았으나, 국내의 의병 운동은 그 후 산발적이거나 강제 병합 후인 1914년까지도 계속되었으며, 일부 의병들은 間島, 沿海州 지방으로 이동하여 해외에서의 독립 운동의 중요한 하나의 맥을 형성하였다.

丁未義兵運動의 전개 과정과 성격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볼 때에 군대 해산에 따른 해산병의 의병 합류는 韓末의 의병 운동을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한 차원 높은 민족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군대 해산 후의 의병 운동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전투력의 향상과 군인 및 평민 출신 의병장의 현저한 대두와 그에 따른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유생, 양반층의 주도하에 衡正斥邪論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출발한 韓末의 의병 운동은 丁未義兵에 이르러서도 그 신분적, 사상적 한계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일제 군경의 야만적인 탄압책에 의하여 진압되고 말았다.

1895년으로부터 20년 간에 걸쳐 계속된 韓末의 의병 운동은 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우리 민족의 불굴의 자주 독립 정신의 적극적 표현이었으며, 그 후의 국내외에 걸친 민족 독립 운동의 중요한 연원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論考에서 筆者는 간략하나마 韓末 丁未義兵運動의 전개 과정을 각 단계별 특성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序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앞으로 韓末 義兵運動의 전반적 성격과 민족 독립 운동사상에서의 의의를 규명하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각 의병 부대의 활동과 의병장의 성향에 대한 개별적이고도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義兵運動의 성격과 의의를 종합적으로 파악, 규명해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ummary

**On The Movement of Chung Mi Volunteers
at the End of Chosen Dynasty**

Kim Hang-ku

This volunteers' movement developed from the late 19 century to the early 20 century under the dark circumstances of Japanese aggression in Korea and the deprecation of national rights followed by it.

It was a positive manifestation of our indomitable spirit of independence to protect our sovereignty and right to live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Chung Mi volunteers' movement broke out in August, 1907 with Japanese forced disarmament of the Korean army. The volunteers' fighting pattern, fighting power, fighting morale was so high and strong that it showed more developed aspects than any other time. So the movement of volunteers echoed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en it began to take on anti-aggressive, and anti-feudal character.

It was at its peak from 1908 to 1909, after that its strength declined and ended due to Japanese military pressure but it was most certainly the origin of further independence movements developed at home and abroad.